

인 사 말

제17대 국회에 40명의 여성의원들이 진출하면서 2004년을 '여성정치 원년'으로 기록하는가 하면 3월 2일 우리나라 여성들의 반세기 동안의 숙원이었던 호주제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 2005년은 양성평등의 마지막 족쇄를 제거한 해로 역사에 기록되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17대 총선에서의 여성운동의 성과와 전망'이란 단행본을 출판하면서 여성정치세력화운동의 지형을 살펴본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서 책의 출판을 기쁘게 생각한다.

역사 이래 처음으로 여성국회의원의 의석 비율이 두 자리 숫자인 13.4%를 차지한 것은 비록 세계 평균치에는 못 미치지만 세계여성의원 비율 101위에서 62위로 39계단이나 뛰어오르게 했다. 이를 두고 언론은 원내에서 여성의원들이 두 개의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으며, 하기에 따라서는 더 이상 들러리가 아닌 실세로서 인구 절반의 요구를 당당하게 주장 할 수 있는 주역들이 되었다고들 한다. '호주제폐지'와 '성매매방지'를 이루어낸 것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다.

여성의 정치세력화운동의 지형이 이만큼이라도 변화된 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다. 여성계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조직적이고 치밀하며 지속적인 운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제17대 총선에서 여성계가 보여준 활동상은 새로운 시도로서 지형의 보

화를 예측할 수 있었다. 321개의 여성단체들이 결속하여 정치관련 제도와 관행 개혁에 주력한 '총선여성연대'의 빈틈없는 활약과 비례직 50%와 선출직 30% 할당제 실시에 대비하여 100여명의 여성후보를 발굴하여 각 정당에 공개 추천한 바 있는 80여명의 여성지도자로 구성된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의 적극적인 활동이 주효한 것이었다.

그리고 여성후보당선운동과 유권자운동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여성재단이 주축이 되었던 '맑은정치여성기금 운동본부'의 활동이 추가되면서 이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성과를 이루어낸 것이다. 여기에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남성위주의 부패정치적결의지가 맞물리면서 제17대 국회에 여성의원들을 포함한 과반수 이상의 초선의원들이 잔존하게 되었고 정치문화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한껏 재고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다.

이 책에는 여성의 정치세력화운동의 역사를 비롯해 제17대 총선에서의 여성계의 대처, 정당들의 반응, 유권자들의 선거행태, 여성정치세력화운동 비판, 그리고 선출직 또는 비례대표의원의 정치행로의 자기 이야기까지 담고 있다.

제17대 총선은 여성들이 당대표로서,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정당의 대변인들로서 여성들이 나서서 차를 선거였다. 각 정당이 처한 위기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들을 앞장세웠던 것이다. 그 결과 여성들의 정치력 검증이 이루어졌고, 이제 여성정치참여의 편견은 사라지게 되었다.

이제 1년 후에는 지방자치선거 그리고 아어서 다가오는 대통령선거, 제18대 총선 등 각급 의회의 선거가 있게 된다. 이번에 펴내는 이 한권의 책은 여성대통령까지도 전망하고 있는 한국의

변화된 정치지형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의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 책을 만들어 내기까지 필자들을 비롯한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의 실무자들의 수고를 기억하며 책의 출판을 환영한다.

2005년 6월

박 영 숙(한국여성재단 이사장)